



## 극한상황에서 발견한 그리스도 李石奉의 단편집 「새벽빛」

— 洪아우구스타 수녀

지금 독사중

“일반인들이 종교적인 체험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理性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각성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석봉씨는 자신이 발견한 신의 섭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 읽는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洪아우구스타 수녀는 「새벽빛」(이석봉, 성바오로출판사)이 비신자들도 아무런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신앙소설로, 일상생활에 배어 있는 ‘하느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洪수녀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대구 성바오로서원에 근무하던 올 봄이었다. 신앙관계 서적을 구입하러 온 신자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기 위해 신간을 미리 읽어두는 洪수녀는 마침 출간된 이 소설집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아 밤을 꼬박 새웠다고.

“작중인물들이 극한상황에 처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빛을 찾게 되는 이야기가 작가 특유의 담담한 문체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인물들이 이웃의 고난에 말없이 동참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말한 사랑의 참된 의미를 곱씹게 합니다.”

洪수녀가 특히 감명깊게 읽은 작품은 「목소리」와 「산 위에 드러나는 마을」이다. 「목소리」는 남편이 사업실패후 죽게 되자 어린 자녀들을 위해 청소부가 된 한 미망인의 이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갖게 되어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산 위에 드러나는 마을」은 상계동 철거민의 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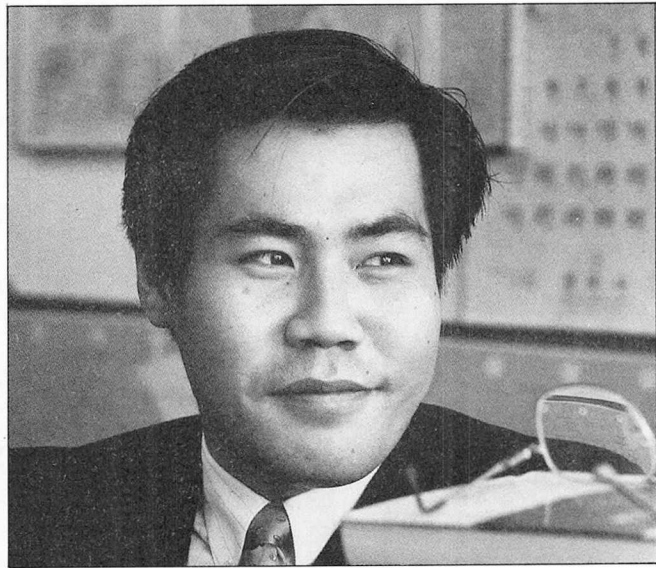
보고서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철거민의 代父인 정일우 신부의 활약상이 잘 묘사되어 ‘세상의 빛’으로서의 성직자가 걸어야 할 길을 밝혀주고 있다.

洪수녀가 소속한 수도회는 성바오로딸수도회. 사회홍보수단을 통해 선교활동을 펼치는 이 수도회는 이태리에 본부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25년이 되었다고. 성바오로출판사와 서원은 수도회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600여종의 책을 출간했다.

어렸을 적, 책이 많은 서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洪수녀는 출판사업을 펼치는 성바오로딸수도회에 소속된 것 자체가 ‘하느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성바오로출판사 편집장을 거쳐 한국광구장을 역임한 洪수녀가 이즈음 수도회에서 하는 일은 교육활동이다. 예비수녀들에게 정결·청빈·順命이라는 ‘복음적 권고’의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하고, 수도생활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는 洪수녀는 이 수도회의 ‘고참’수녀다.

“저희들의 사명은 출판물 통한 복음전파입니다. 그래서 책 한권이 출간될 때마다 성상앞에 모여 저희들이 만든 책이 읽는이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데 조그마한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 이권우 기자



## 인도 하층민의 현실과 꿈 바바 하리 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 회사원 羅允重씨

지금 독사중

여행사에 근무하는 羅允重씨(30·세유 여행사)에게 인도는 꽤 친숙한 나라이다.

인도에서 인도철학을 공부했고, 현지답사를 위해서도 인도에 갔었다. 그래서인지 바바 하리 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류시화, 정신세계사)를 읽고 있다는 그는, 책 밖의 인도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전해준다.

“이 책의 청소부는 인도에서 하리잔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아이’란 뜻을 지녔는데, 그들은 거리에서 태어나고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거리에서 취하고, 거리에서 죽습니다.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는 하층민으로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지요.”

바바 하리 다스도 이 하리잔 출신의 시인이라고 일러준다.

“주인공 바잔은 좀 여유가 있는 청소부로 마약에 중독되어 집에서 돈을 훔쳐 떠납니다. 말이 없고 착한 사람이지요. 그에겐 환자들의 아픈 곳을 감쪽같이 낮게 하는 재주가 있어 다른 도시에서 환자들을 위해 일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죠.”

바잔은 병을 낮게 하는 재주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린 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죽는다.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가 사람들의 아픈 곳을 낮게 해주고, 탐욕과 거짓으로부터 초탈한 성자로 변화하는 점이 국내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아닐까요. 하층은 신분임에도 정신적으로

고양된 상태를 찾는 것이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도인들의 세계관 내지 가치관이다.

“주인공 바잔은 의술을 통해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조차 욕망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는 일체의 욕망을 버려야 하고 내면으로 침잠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인도인들은, 덜 교육받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선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더 탐욕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최고신인 시바가 거지모습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낙망하지 않고 긍정성을 찾으려 합니다. ‘신조차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나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인도 여행중에 ‘노우프러블럼’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지난 8월부터 동남아시아, 주로 인도·티벳 등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게 그의 직업이 되었다. 일과 여행을 아우를 수 있어 즐겁다는 그는 영어·일어·인도어·독어를 ‘형편없이’ 구사할 줄 알고, 외국에서 발행되는 여행관계 잡지는 그의 손에 늘 쥐어져 있을 정도.

평소에 철학관계나 인류학관계 도서를 즐겨 읽는 편인데, 근래 인상적인 책으로는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황금가지」를 꼽는다.

— 홍현숙 기자



## 젊은 화가의 꿈과 고뇌 어빙스톤의 「빈센트 반 고흐」

— 교사 李達完씨

지금 독서중

20대 후반에 들어서면  
직업과 배우자 선택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李達完씨  
(29·홍익대부중

교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친구들과  
만나면 늘상 화제로 떠오른다.

“20대가 갖는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몰두할 수 있는 일과  
이성에 대한 사랑은 무척 중요하지요.  
어빙스톤의 「빈센트 반 고흐」(최승자,  
까지)는 이처럼 실존적인 문제를 고흐란  
인물이 어떻게 겪어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고흐전기입니다.”

이달완씨가 사회에 발을 디딘지도  
만2년이 되어간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만, 아직껏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엔 부족함이 크고, 결혼할 상대자를  
구하지도 못한 상태.

“고희의 경우, 일은 찾았지만 사랑을  
찾는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고흐의  
20대는 좌절과 패배의 연속이었거든요.  
축망받는 畫商이었던 고흐는, 어느날 화상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려고 공부합니다.  
계속적인 패배 끝에 화가가 되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탄광촌에서 광부들과 함께 생활하던  
얼마간입니다.” 탄광촌에서 고흐는 자신의  
월급을 몽땅 털어 광부들에게 쪼개주고  
헐벗은 생활을 한다. 그런데도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파면을 당하기도  
한다.

“광부들과 스트라이크에서 실패한  
뒤 고흐는 어떤 것에도 시들해집니다.  
멀뚱히 늘면서 광부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화가로 들어서게 되었죠.  
이때의 생활은 화가 고흐보다는 인간 고흐를  
느낄 수 있게 하지요.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그를 친근하게 느끼게 해요.”

탄광촌생활은 이후 「감자 먹는 사람들」과  
같은 그의 작품에 소재를 마련해준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또 한가지는  
고희의 작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잘 묘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저로서도 절로  
그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고희와 고갱과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데,  
당대 인상파화가들의 그림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이라든지, 여타  
인상파화가들의 숨겨진 이야기들도  
묘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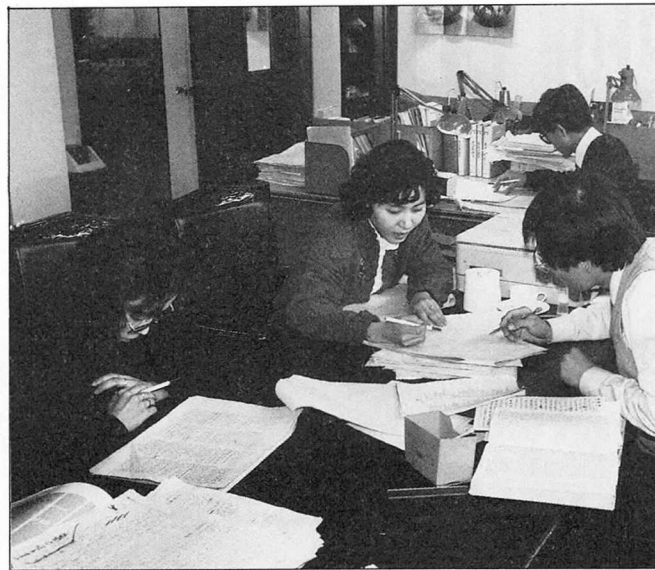
“줄라도 나오더군요. 얼마전 줄라 소설  
「제르미날」을 읽었는데, 「제르미날」의  
탄광촌과 고흐가 갔었던 탄광촌이 동일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고 재미있었어요.”

고희가 어렵게 그림에 발을 디디게 되고  
힘든 환경 속에서 결국 정신병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안쓰러웠다고 한다.  
그림에 대한 정열에도 불구하고 고흐의  
심약함이 보호해주고 싶은 심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고흐가 사랑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창녀와의 사랑이 절실하게  
펼쳐지지만, 고흐의 일방적인 봉사와 희생이  
더 크거든요.”

이달완씨는 결혼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  
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결혼과 진실이 공존  
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 홍현숙 기자



## 영어학의 이론·학설·술어 총망라 국내 최초의 「英語學大辭典」

— 도서출판 新雅社

지금 제작중

35년 동안 어학출판의  
외골을 지켜온  
新雅社(대표 鄭錫均)가  
국내 최초의  
「英語學大辭典」을

기획, 제작중에 있다. 영어학이란 종래의  
전통 영문법은 물론, 최근 성행하는 문법과  
언어학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의미의  
학문을 일컫는다.

“언어의 영향력은 상당히 큼니다. 모든  
영어학은 개별언어로 국한되지 않고  
보편성을 띠며 상호연관을 갖게 되죠. 최근  
언어이론이 심리학·사회학·철학 등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관련이 높아짐에 따라  
언어학이 다른 학문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학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영어학사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편집부장 洪乙杓씨(35)는 「영어학대사전」  
의 간행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이 편찬사업이 시작된 것은 1984년.  
편집주간 趙成植교수(고려대), 편집총무  
李庸宰교수(고려대), 편집위원 9인 등  
11인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접분야와의 연계를 고려해 각 분야를  
전담하는 편집책임자를 선정했다. 이어서  
표제어(entry) 채택과 각종  
전문어(terminology)를 우리말로 번역,  
통일하는 작업이 85년까지 계속됐다. 그후  
원고정탁·회수, 보충·편집과 8차례의  
편집회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88년 1월에야  
제작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4·6배판, 1600여면 분량의 이 사전에는  
총 2,750항목이 수록되는데, 단순한  
용어해설로 그치지 않는, 그 분야의

연구업적으로 남을 만한 '학문적 성과'가  
되리라고 흥을표씨는 기대했다. 현재 80%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고, 90년 2월말쯤이면  
간행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이 「영어학대사전」이 제분야를  
포괄하는 “다분히 백과사전적인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전의  
간행은 결코 만만치 않은 대작업이어서 오랜  
동안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 편찬사업에는 총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영어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원된 셈이다. 내용 중에서 특히  
비중있는 항목을 다룰 때는 집필자를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 된다고.

또, 이 사전의 권말에 '名著解題'를 두어  
영어학의 시초에서 현재까지 학문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는 서적 122권을 추려 묶을  
계획이다.

미답의 분야에 처음 표지판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꼭  
간행돼야 할 책이라고 느끼지만, 영리성을  
초월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의식을 가진 출판사가 그리 흔치 않기  
때문이다. 「영어학대사전」의 간행 계획을  
아는 이들로부터 격려와 독촉을 받고 있다는  
신아사 편집부는, 발간 예정일을 하루라도  
앞당기자는 열기로 가득했다.

이 사전의 주대상층은 영문학도는 물론  
일반인·학생층까지 포함하는데,  
단순·평면적 지식 습득에 익숙해 있는  
교육관습에 다각적이고 폭넓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권정자 기자